

엔리케 뻬냐 니에또(Enrique Pena Nieto) 멕시코 대통령 집권 이후 멕시코의 상황

최명호 교수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■ 주요 내용

- 2012년 엔리케 뻬냐 니에또(Enrique Pena Nieto) 멕시코 대통령의 당선 이후 멕시코는 현재 환율정책의 문제로 수입물가가 증가하였고, 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함.
- 2016년 6월 5일 시행된 지역선거에서 여당인 제도혁명당은 기존 보유하고 있던 9개 주에서 4개를 잃었고, 야당인 국민행동당은 7개 주에서 승리함.
- 2018년 정권 말기까지 제도혁명당이 지지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1

엔리께 빼냐 니에또 정부 집권 이후 멕시코의 경제적 상황

☒ 2012년 멕시코 주 주지사였던 엔리께 빼냐 니에또(Enrique Peña Nieto)는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되었음.

- 당선 당시 38%의 지지를 받았으며, 제1야당인 국민혁명당의 후보는 25.4%, 제2야당인 민주혁명당의 후보는 31.5%의 지지를 받음.
- 그러나 임기 초반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엔리께 빼냐 니에또 정부는 30%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음.

☒ 멕시코는 현재 환율정책의 문제로 수입물가가 증가하였고, 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는 결과가 도래함.

- 무엇보다 멕시코 환율정책의 문제로 인해 1달러당 11페소였던 것이 2016년 상반기에 들어 달러당 19페소까지 상승함.
 - 2016년 7월 22일 기준, 1달러당 18.6페소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.
 - 이러한 멕시코 환율정책의 의도가 우리나라 MB 정권 때와 비슷하게 고환율 정책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인지,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움.
 - 그러나 이러한 환율정책이 수출·경상수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, 결과적으로는 수입물가가 증가하여 내수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.
 - 예를 들어, 3달러의 물건이 2012년에는 33페소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면, 현재는 57페소의 가치를 지님.
 -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2배 이상일 것이며, 특히 중하위 계층에서 느끼는 여러 압박은 그 이상일 것임.
- 또한 한 번에 2~3%가 증가한 멕시코의 GDP 성장률 역시 현재 멕시코가 고환율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임.
 - 멕시코 정부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고환율, 즉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양적 완화의 효과이기 때문임.
- 각종 거시경제 데이터를 종합하면, 멕시코는 약 3%의 경제성장률, 인플레이션, 이자율을 보이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.
 -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수치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고, 이는 2020년까지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

라고 전망함.

- 멕시코의 경제는 거시경제지표만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수준임.
 - o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의 경제 상황은 거시경제지표처럼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함.
- 경제 부문에서 멕시코는 수출의 80% 이상을, 수입의 50% 이상을 미국과 거래하고 있음.
- 일국의 경제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멕시코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.
- 결론적으로 빼냐 니에또 정권 하의 멕시코 경제는 그리 안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음.

2 엔리께 빼냐 니에또 정부 집권 이후 멕시코의 정치·사회적 상황

☐ 정치적으로도 빼냐 니에또 정부는 멕시코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.

- 멕시코 정부 산하 국가 공공안전위원회(SNSP)의 발표에 따르면, 빼냐 니에또 정부 출범 이후 20개월 동안 고의적 살인에 대한 예비 수사가 총 58만 7,889건 진행되었음.¹⁾
 - o 빼냐 니에또 대통령의 취임 이후, 멕시코 내 구치소는 자신의 권리, 토지, 재산 등을 지키거나, 가족을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나선 이들로 가득함.
 - o 정치수감자 보호협회인 ‘네스토라 리브르’ 위원회가 2014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2012년 12월 이후 최소 350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되었음이 나타나 있음.²⁾
- 미초아칸 주에서는 갱단에 맞서기 위한 시민자경단 단원 328명과 설립자 호세 마누엘 미렐레스 박사가 체포되었음.
 - o 게레로 주에서는 라파로타 댐 건설에 반대하던 자경단 단장 네스포라 살가도와 지역 경찰 13명, 민중 지도자 4명이 수감되었으며, 뿌에블라 주에서는 심각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열전기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 33명이 한동안 수감되기도 함.

1) ‘Los muertos con Peña llegan a 57 mil 899 en 20 meses; son 14 mil 205 más que en el mismo periodo de Calderón: Zeta’, 2014년 8월 25일, www.sinembargo.mx

2) Verónica Macías, ‘Denuncian más de 300 presos políticos en gobierno de Peña’, <엘 에코노미스타>, 멕시코, 2014년 8월 20일

- 멕시코시티, 키타나 로오 주, 치아빠스 시 등 수많은 지역에 갇혀 있는 정치수감자의 수가 이제 더 이상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임.
- 소노라 주와 치아빠스 시에서는 수도 민영화에 반대한 시민들, 비료 지원을 요청한 시민들이 모두 체포되어 수감되기도 하였음.
- 2014년 게레로 주 아요트시나파(Ayotzinapa)의 라울 이시드로 부르코스 농촌사범학교 소속 학생들이 이팔라 시에서 교사 임용 차별에 대해 시위를 벌이던 중 6명이 숨지고 4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.
 - 실종된 학생들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도보로 끌려갔으며, 그곳에서 갇단은 학생들에게 구타 등 모욕적인 폭행을 가한 뒤 기름을 뿌려 그들을 산 채로 불태웠음.
 - 참수, 집단 살인, 고문 등 각종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제는 익숙해진 멕시코 국민마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음.
- 이 사건이 범죄 조직과 정치 지도층이 손을 잡은 권력층 주도의 테러 행위라는 것이 확실시되자, 멕시코에서는 “Narcoestado³⁾”라는 용어가 대두되었음.
 - 동시에 공권력 및 권력에 대한 혐오가 늘어가기 시작했으며, 이 사건에 대해 2015년까지 진상 규명을 외치는 시위가 잦아들지 않았음.

❑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중간선거 결과, 멕시코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었으며 반정부 정서는 더욱 확산되었음.

- 2015년 연방하원 500명, 주지사 9명, 시장 900명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진행됨.
 - 이 과정에서 2015년 5월 14일,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 주 유레파로 시에서 좌파진영인 ‘국가개혁명당’⁴⁾ 대표로 시장선거에 출마한 엔리케 에르난데스 사우세도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 엑셀시오르가 5월 15일 보도함.⁵⁾
 - 5월 1일에는 게레로 주 칠라빠에서 출마한 집권당인 제도혁명당의 후보 올리세스 빠비앙 끼로스가 선거 유세를 마친 뒤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, 1월에는 민주혁명당 후보로 와하카 주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총에 맞아 사망했음.
 - 2015년 4월에는 게레로 휴양도시인 아까뿔코에서 시민운동권 후보로 출마한 루이스 왈폰이 무장한 20여 명의 괴한들로부터 총기 위협을 받기도 함.
-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결국 멕시코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었음.
 - 중간선거에서 국가 개혁명당이 약 10% 정도의 지지를 받았고, 상대적으로 민주 혁명당의 지지가

3) ‘마약 국가’라 직역할 수 있으나 그 의미로 보면 마피아 국가 혹은 야만의 공화국이 더 어울릴 것이다.

4) El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(국가 개혁명당, 모레나 Morena로 더 알려져 있다.)

5) <http://m.media.daum.net/m/media/world/newsview/20150516011612276>

- 반 토막이 난 것을 제외하면 빼냐 니에또 정부는 그저 현상유지를 한 수준이었음.
- 그러나 국민의 반정부 정서는 점점 더 확산되었음.

▶ 2012년 각 정당의 대표와 빼냐 니에또 정부는 ‘멕시코를 위한 협약(Pacto por Mexico)’에 합의했고, 이를 근거로 교육 개혁을 실시하였음.

- 멕시코 전국교원노조(SNTE: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Educacion)의 부패와 기득권을 해체한 것은 교육개혁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.
- 그러나 2013년 게레로, 와하카, 뿌에블라, 치아파스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 공무원협회(CNTE: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on)는 현재까지 교육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,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음.
- 더불어 최근(2016년 6월 20일) 발생한 교육개혁 반대 시위에서는 큰 무력 충돌이 있었고, 이로 인해 현재까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상자 역시 1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됨.
 - 현재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, 시위대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여론보다는 진압과정의 문제, 이팔라 시의 학생 학살사건처럼 지역 정부의 음모론 등이 대두되고 있음.
 - 이는 “Narcoestado”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음.

▶ 12개 주의 주지사 선출을 위해 2016년 6월 5일 시행한 지역선거를 통해 멕시코의 현재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음.

- 이 선거에서 여당인 제도혁명당은 기존 9개 주에서 4개를 잃었고, 국민행동당은 7개 주에서 승리함
- 선거에서 적어도 현상유지를 할 것이라 장담하던 제도혁명당의 대표 만리오 파비오 벨트로네스(Manlio Fabio Beltrones)는 결국 대표직에서 사임함.
-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빼냐 니에또 정부의 실패를 반영한 것으로, 현재 정부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례임.
- 이번 선거에서 국민행동당은 민주혁명당과 연계하였으며, 아구아스칼리엔테스, 치와와, 두랑고, 따마울리빠스, 뿌에블라, 킨나나 로오와 베라꾸르쓰 등 총 7개 주에서 승리함.
 - 마약과 마피아 문제가 심각하던 따마울리빠스 주에서는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완벽하게 승리하였으며, 베라꾸르쓰의 경우에는 민주혁명당과 연대를 통해 3.9% 차이로 승리하였음.
 - 물론 와하카의 경우처럼 다시 제도혁명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, 국민행동당은 11

- 개 주에서 최대 득표를 올렸음.
- 민주혁명당과의 연대와 같은 직간접적인 연대가 계속된다면,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행동당은 최대 득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- 여당인 제도혁명당은 나머지 다섯 주, 즉, 이달고, 와하카, 시나로아, 프리쓰칼라, 싸까떼까스에서 승리함.
 - 두랑고, 따마울리, 빠스, 킨나나 로오와 베라꾸르스 주는 제도혁명당이 설립된 1929년 이후 제도혁명당의 고정 텃밭이었으나,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타당에 넘어감.
 - 제도혁명당은 자신의 텃밭을 놓친 것이 치명적이며, 이번 지역선거의 결과가 제도혁명당의 비극의 서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임.

3

전망과 시사점

2018년 정권 말기까지 제도혁명당이 지지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- 물론 지역선거의 결과로 멕시코에 커다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움.
- 그러나 정권을 심판하자는 멕시코의 분위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, 이 과정에서 국민행동당이 최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됨.
- 더불어 앞서 강조한 것처럼 민주혁명당과의 연대의 추이에 따라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- 중도우파로 알려진 국민행동당과 중도좌파로 알려진 민주혁명당의 연대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.
 - 민주혁명당의 진보적 혹은 좌파 세력은 국가개혁당을 창당하면서 분리되었고, 현재 민주혁명당은 중도적 성향이라 보는 것이 현실적임.
- 국민행동당과 제도혁명당의 이념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, 실제 선거에서 경쟁하는 세 정치세력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.
 - 굳이 구분한다면 국민행동당은 시장 주의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, 제도혁명당은 수구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음.
- 국민행동당의 입장에서 민주혁명당과의 연대는 모자란 10%를 얻기 위한 방책임.
 - 2012년 대선에서 국민행동당은 25.4%, 민주혁명당은 31.5%의 지지를 받았으며, 이 둘의 지지

- 율을 합치면 56.9%로 과반이 넘게 됨.
- 현재 대통령인 Peña Nieto가 38%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, 40% 이상의 지지율을 선취할 수 있다면 대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도 있음.
 - 어떤 후보가 출마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, 국민행동당과 민주혁명당의 연대는 상당한 시너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이 과정에서 멕시코의 원주민, 중하층, 남부지역 등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, 동시에 국가개혁당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.
 - 물론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국가개혁당의 지지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임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이 '수구/보수 혹은 중도/진보'로 나누어진다면 현재 멕시코의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진보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임.
 -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국가개혁당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음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"Narcoestado"라는 자각, 환멸에 빠진 사람들이 정치적 무관심, 불신에 빠져 버린다면 멕시코 정치의 전폭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. **EMERiCs**

출처

'Los muertos con Peña llegan a 57 mil 899 en 20 meses; son 14 mil 205 más que en el mismo periodo de Calderón: Zeta', 2014년 8월 25일, www.sinembargo.mx

Verónica Macías, 'Denuncian más de 300 presos políticos en gobierno de Peña', <엘 에코노미스타>, 멕시코, 2014년 8월 20일

<http://m.media.daum.net/m/media/world/newsview/20150516011612276>